



제주비엔날레, 어린이 도슨트와 색다른 예술 여행

총감독·어린이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특별 도슨트 오는 11일 도립미술관에서... 제주어로 작품 소개도

83일간의 여정의 반환점을 돈 제4회 제주비엔날레가 특별 도슨트로 관람객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한다.

오는 11일 오후 4시30분 제주도립미술관 방문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특별 도슨트는 이종후 총감독의 전반적인 전시 설명에 이어 제주비엔날레 도민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김재준, 구민서 어린이가 참여해 작품을 소개한다.

김재준 어린이는 인도네시아의 퍼포먼스 예술가 야구스 누르 아말의 '라롱 페스티벌(LARUNG FESTIVAL)'을 설명하고, 구민서 어린이는 김순임 작가의 'Sea-Scape_Jeju (바다 풍경_제주)' 작품을 제주어로 풀이하며 관람객들에게 작품의 매력을 전할 예정이다.

오브젝트 시어터 형식의 '라롱 페스티벌(LARUNG FESTIVAL)'은 제주도의 전통 영등굿 의식에서 영감을 받은 신작이다. 지난해 11월 작품 제작을 위해 제주에 방문한 야구스 누르 아말 작가가 제주의 금악초 학생들과 함께 협력해 작품을 완성했다.

'Sea-Scape_Jeju (바다 풍경_제주)'는 작가가 직접 제주 해변의 쓰레기들을 수집해 제작한 설치 작품으로,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흘러온 다양한 플라스틱 조각들을 고유한 질감과 색채에 따라 분류해 조형 작품으로 재탄생시켰다.

환경 오염 물질인 플라스틱이 우리의 삶에 자연의 일부처럼 자리잡은 현실을 제주어로 전달함으로써 작품의 메시지가 더욱 강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비엔날레 총감독인 이종후 제주도립미술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관람객들이 제주비엔날레의 작품과 그 의미를 깊게 이해하고, 예술과의 소통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며 "어린이 도슨트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가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제주비엔날레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된 구글 폼 링크를 통해 할 수 있다. 사전 신청 선착순 30명에게는 무료 입장권과 제주비엔날레 한정 에디션 예코백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비엔날레 및 제주도립미술관 사회관계망(SNS)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오은지기자](mailto:eoenjizha.com)

제주 자연과 문화 품은 추상의 세계

고민철 개인전 '제주적 추상' 오는 11~16일 문예회관에서

고민철 작가가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독창적인 추상적 실험을 화면에 담아 선보인다.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제주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리는 작가의 열여덟 번째 개인전을 통해서다.

'제주적 추상(기억의 파편)'을 주제로 내건 이번 전시에선 1000호 크기의 대작을 비롯 3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나의 작업은 몸의 제스처가 만들어 내는 하나의 의식과도 같다"는 작가는 "즉흥적이고 직관적이며 무엇에도 거리낌없이 내 몸을 관통하는 바람에 의식을 맡겨 버린다"고 작업 과정을 소개한다. 다만, 형식에서 자신의 원초적 기억들과 삶의 환경에서 몸이 낸 시각적인 경



고민철 작 '제주적 추상-바람'
 힘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몸의 생생한 기억들로 화면을 채운다는 설명을 더한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mailto:eoenjizha.com)

인문학적 시선으로 제주와 마주하다

탐라도서관, '지하수·돌문화·4·3' 주제 강연·탐방

탐라도서관은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인문학적 시선의 제주'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제주의 지하수와

돌문화, 4·3을 주제로 강연과 탐방을 병행하며, 제주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테마 '제주의 지하수,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는

제주의 지질과 지하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하수 보전·관리의 필요성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된다. 지하수 관측망 시설 방문도 예정돼 있다. 두 번째 테마 '돌의 고향, 제주의 돌문화'에서는 사라지거나 훼손되고 있는 제주의 돌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제주 곳곳에 존재하는 석상, 비석, 보물탑 등을 직접 보고 느끼며 제주인이 갖는 돌

문화의 의미와 상징을 되새겨보는 시간으로 꾸러진다. 마지막 테마 '제주 4·3은 무엇인가'에서는 제주 4·3의 아픈 역사를 다룬다. 참가자들은 대정읍 지역을 중심으로 4·3 유적지를 탐방할 예정이다.

참여자 모집은 각 주제별로 이뤄지며, 1회차 참여 신청은 9일부터 제주도 공공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오은지기자](mailto:eoenjizha.com)

곳곳 도서관서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겨울방학을 맞아 곳곳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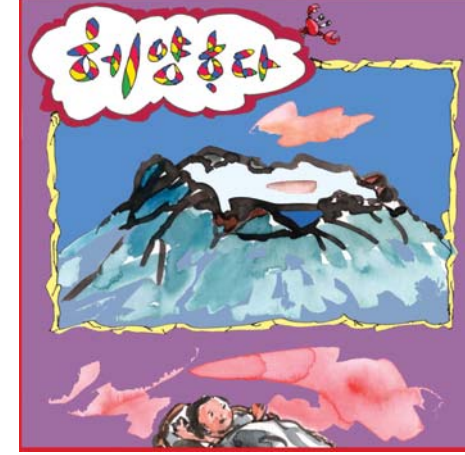
제주시 기적의도서관은 예비 초 1~4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 현상들을 그림책과 독후활동을 통해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는 특강을 준비했다. [조전음 오은지기자](mailto:eoenjizha.com)

도서관은 초등학교 예비 3~6학년을 대상으로 '책과 창작놀이'를 주제로 '겨울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이밖에도 도내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신청 접수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은지기자](mailto:eoenjizha.com)

고재만의 제주어기림향판 <433>

구성: (사)제주어보존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하르바지 꼴맨. "왕이야 왕이야 설문에기야-아양하께- 왕이야 자랑야, 왕이야 자랑야, 왕이자랑 왕이자랑, 자랑자랑 왕이자랑. 삼승할마님, 제기 왕 우리 왕이 좀 잘 자게 하여줍서. 올 때라그네 비크레깃질로 말앙 곱따흔 질로 하르복기, 노적노적하께 와사래꾸다. 옛날 제주 풍광 소꼽서 삼승할마님 보구정 후우다. 만나민 우리 왕이영 영주심경 소꼽더래 가지권게마썸. 경하난 우리 왕이 좀 잘 자게 도웨줍서. 우리 왕이 착흔 왕이신디 아어나아터리영 하지마셔. 아영아영, 아야기어영도 하지말앙앙 난 몰르키어영도 하지말앙앙, 그자 버려보멍 아양하께 아양하께영만 곱아줍서.

삼승할마님, 이제부떠 영주심경 이악 소꼽더래 곱따 디물파꾸꾸멍? 녹담만설이러-한락산 정상에 이신 백복담 소꼽엔 물이 뚝난 사슴 탄 온 신선이 먹엇흔하는 전설이 잇수다. 이디에 묻은 저슬 눈이 다음해 5월77장은 안늑안양. 경하난 한라 영산 봉우리를 은빛 추록 해양개 빛내어 주면마썸. 경하난 곱맨 곱맨 녹담만설이런 곱맨 영주심경 소꼽에 디물파 낫수게. 해양흔 눈물이 백복담광 윗세오름 스방에 온 시상을 해양개 수놓아노난 산을 올라가는 사람덜 미심을 느랑 설레게 멘들아마썸. 삼승할마님, 저슬을 보내멍 초오름77지 안늑은 눈 소꼽에 이신 뚝은 물을 먹어 보셔서, 백복담은 사람덜이 흥부로 가차이 하지 못 하흔 신선이 산행 하흔 디영 하멍 심비갑을 더 맞볼 수 잇수게. 자랑자랑 왕이자랑. 삼승할마님, 제기 오랑 우리 왕이 좀 잘 자게 하여줍서."

제주어 풀이 *해양하다 (하양하다, 해양하다, 해영하다, 회양하다, 회영하다, 회영하다) : 하양다.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사.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보청기 제품비용) 20,000원 (후기 적합 관리비용)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 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 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 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멍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인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분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영리하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관심리 심의번호 2020-GN180079

WIDEX®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박사수료

산학협력교수

전문청능사

언어재활사